[ 한국도시설계학회 2022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중소도시의 노후주거지 진단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 소제목(필요시 작성)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for the diagnosis index of deteriorated residence in small and medium city

- Focused on Community : 영문 소제목(필요시 작성)

홍길동\* · 이순신\*\*

Hong, Kil-Dong · Lee, Soon-Sin

도시대학교 대학원 도시설계학과 석사과정\*

도시대학교 대학원 도시설계학과 교수\*\*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금까지의 기성시가지 주거지 개발은 주민의 사회적 여건이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주로 물리적 환경을 기준으로 지역을 진단하고 재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노후주거지의 문제는 열악한 물리적 환경과 함께 저소득층의 집단거주지로 인식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거주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낮아 부정적인 지역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는 문제가 함께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후주거지의 구조적 문제는 물리적 환경개선만으로는 건강한 정주환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선정과정에서 지정기준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지자체 제출서류는 물리적 항목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는 지구의 특성을 판단하거나 지구를 진단하기에는 부족하며, 50만 미만 도시의 경우 지구진단을 위한 진단지표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지구특성 진단지표 설정하여, 중소도시의 노후주거지 지정기준이나 지구현황을 파악할 진단지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노후주거지를 유형화하거나 평가한 기존 선행연구와 노후주거지의 대표적인 정비수법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수립절차를 검토하여 노후주거지의 개념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진단지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국내 선행연구와 노후주거지와 관련한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국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사례의 검토를 통한 진단항목을 추출하여 분석, 종합하고자 한다. 두번째, 진단항목의 체계화를 통하여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로 위계를 나누어 지구의 특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을 체계화한다. 마지막으로, 진단항목의 측정을 위한 산정지표를 설정하고자 하며, 지표활용 가능성을 토대로 지표 항목을 단순화한 단순지표와 자세한 현황파악을 위한 정밀지표로 구분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기존 행정서식의 검토**

**2.1. 관련 선행연구**

노후주거지 유형화 진단지표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후주거지를 유형화하여 사업방식을 제시하는 연구유형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선방향 모색을 위해 연구된 현지개량사업을 중심으로 주거지의 특성을 기준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나뉜다. 기존의 노후주거지를 유형화하는 연구는 어떤 특성을 중심으로 노후주거지를 유형화하였는지에 따라 나누어보면,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정치선 외, 1998, 김근성 외, 2000, 김인희 외, 2004, 서수정 외, 2006)한 연구와 물리적 환경과 함께 거주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분류(김혜천, 1999, 박철수 외, 2002, 강세진, 2007)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  |
| --- | --- |
| **유사용어** | **개념 및 특성** |
| 노후불량  주택 | ㅇ 김인희(2004) : 불량․불법성으로 판단하며, 다음 조건에 포함되는 주택이 30년 이상 경과하여 정비가 시급한 주택으로 무허가 건축물, 90㎡이하의 영세필지에 건축된 건축물, 부엌․화장실․세면장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주택, 급수․배수․오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건축물 |
| 노후불량  건축물 |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건축물의 급수ㆍ배수ㆍ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
| 노후  주거지 | ㅇ 손경환(1997) : 노후주거지역을 당초에는 일정주거수준을 유지하던 주거지역이 도시공간구조가 변하고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노후화한 지역으로 정의함  ㅇ 박철수 외 2(2002) : 불량주거지를 포함하여 주택이나 주변상황이 시간이 흘러 낡고 시대적 변화상황에 대응하지 못하여 제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주거지역으로서 계층적 특성보다는 물리적 환경측면에서의 불량도를 나타내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봄. 노후화된 주택이 자연발생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과밀화된 주거지로서 이로 인해 도시기반시설의 과부화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이 부족하게 된 지역을 말하며 과밀개발로 인해 주거기준인 안전, 위생, 편리, 쾌적성이 낮은 주거지역을 의미  ㅇ 임희지․신중진(2003) :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산업의 발달과 이촌향도 등으로 급증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부족한 택지를 대량으로 확보하고자 행정구역을 확장하면서 진행된 대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계획시가지역들과 일부 도로정비사업에 의하여 정비된 시가지역. 이들 노후주거시가지는 도심 반경 5km에서 15km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종합계획 없이 평면적 확산이 이루어져 필지가 작고, 도로폭이 작으며 학교와 공원 등 공동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들로 구분하고 있음  ㅇ 김인희(2004) : 노후불량주거지와 일반노후주거지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  ㅇ 이왕기(2005) : 건축물 자체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되어 정비가 필요함은 물론 주거지역으로 조성되는 과정에서 초기단계와는 달리 과밀화되고 시대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기반시설 등은 정형화되어 있으나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지역 |
| 불량  주거지 | ㅇ 박철수 외 2(2002) : 유럽이나 미국의 슬럼(slum)지역과 같이 사회학적 측면이 부각되어 도시빈민층이 모여 사는 계층적 특성을 반영한 주거지. 공중위생으로부터 출발한 개념으로서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통풍, 환기, 일조 등의 피해와 상하수도 시설, 화장실, 급수시설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거주성이 저하된 주택지로서 태생자체부터가 주거기능으로서 적정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조성된 주거지 |
| 노후불량  주거지 | ㅇ 김인희(2004) : 노후불량주거지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경과하여 주택 및 주변 환경의 기능이 저하된 노후화된 주거지’와 ‘불량하고 불법적인 주택이 밀집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량한 주거지’의 두 가지 의미를 포괄적으로 포함한 광의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노후불량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기준에 따라 전체블럭의 2/3이상 분포하고 있으며, ha 당 80호 이상 밀집하고 있는 주거지로 전면재정비가 필요한 주거지  ㅇ 배순석(2000) : ‘해당지역의 경제수준, 문화 및 전통 생활양식의 관점에서 본 사회통념상 최소한의 기준이하의 지역으로 주거환경수준이 거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수 없으며,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매우 낮은 지역’이라고 정의하였음 |
| 일반노후  주거지 | ㅇ 김인희(2004) : 노후불량주택의 분포비율이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노후불량주택과 일반노후주택이 혼재 분포된 주거지로 기본적으로 수복형 정비방안이 필요한 노후주거지(단, 노후불량주택의 밀집도 및 가로상태에 따라 전면정비방안도 검토될 수 있음) |
| 무허가  불량주거  지역 | ㅇ 임희지․신중진(2003) : 국․공유지나 사유지를 무단 점거하여 축조된 불법건축물들이 밀집되어 형성된 지역으로 상․하수도나 위생시설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보건위생이나 재해위험 등이 잠재되어 있고 도로폭이 좁고 단차가 많아 차량접근이 어렵고 불법적으로 점유되어 노후된 후에도 자체적으로 건축이 어려운 지역들로 1945년 해방과 6.25동란 등 격변하는 도시화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지역 |

그런가 하면 연구대상지인 노후주거지의 지리적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였는지를 중심으로 기존 연구를 분류해보면, 시가지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시가지 전체의 블록을 일정단위로 구분한 후 이를 분석하여 유형화 한 연구(임희지 외, 2004, 강세진, 2007)와 개별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지구의 물리적인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유형화한 연구(정치선 외, 1998, 김근성 외, 2000, 박철수 외, 2002, 서수정 외 2006)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류한 선행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리적 여건에 따른 분류방식(김근성 외, 2000), 도로 및 필지형태에 따른 분류방식(정치선 외, 1998, 윤영미 외, 2004), 서울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노후주거지만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밀집정도에 따라 유형을 분류한 방식(김인희 외, 2004), 서울 및 전국의 현지개량사업 대상구역의 물리적 환경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선정을 토대로 유형을 분류한 방식(서수정 외, 2006) 등으로 나뉜다. 물리적 환경과 함께 거주가구 특성을 같이 고려한 선행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후주거지 전체를 대상으로 불량주택밀집정도와 자가소유비율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분류한 방식(박철수 외, 2002)과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지역의 물리적 환경, 거주특성,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사업유형을 분석한 방식(김혜천, 1999),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특성,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도시지리적 특성, 물리환경적 특성의 주거환경지표에 따라 주거지의 유형을 분류한 방식(강세진, 2007)으로 나뉜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는 물리적 특성이나 거주가구 특성을 기준으로 노후주거지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나, 이 분석 내용을 가지고 대상 부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민이나 지자체의 환경 정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진단지표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본 연구는 별도의 정밀조사없이 행정이 가지고 있는 행정자료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구의 특성을 판단하거나 진단할 수 있는 진단지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지자체 제출서류 등 기존 행정서식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지구환경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진단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진단항목과 진단체계를 설정해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실내, 도로, 지하철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2.2. 주거환경개선사업 절차 및 현행 지구지정 제출 서류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정비예정구역의 선정절차는 (그림 1)과 같이 대부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첫째, 주거지역 중에서 검토대상구역을 선정하고, 둘째, 항공사진, 수치지적도, 수치지형도,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하여 분석의 기본단위를 설정하고, 최소분석 단위별 현황분석을 한 후, 셋째, 기본단위의 현황분석에 따라 적정규모로 정비예정구역 대상 후보지를 선정한다. 넷째,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통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를 선정하여 이를 반영하고, 다섯째,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현장 실사 조사 및 현황자료를 보안한다. 여섯째, 주민요청구역을 포함한 전비예정구역에 대한사업 유형을 결정하는데, 구역경계조정의 기준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경계를 조정한다. 선정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수립지침의 지정기준이나 각 지자체의 조례지정요건 부합여부를 재검토하여 최종 선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은 <표 2> 왼쪽 편의 내용과 같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위해서 지자체가 작성하는 서류의 항목구성은 <표 2> 오른쪽 편의 내용과 같다.

지자체의 정비예정구역 선정과정에서 작성되는 지구 지정기준과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지자체 제출서류는 지구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거나 지구를 진단하기에는 부족하며 개선이 필요하다.

|  |  |  |
| --- | --- | --- |
| **구분** |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을 위한**  **지자체 제출서류** |
| 인구 관련 | 인구밀도 | 거주인구수, 가구수 |
| 자연환경 관련 |  | 대상지내 최고/최저 해발고도, 중심시가지 해발고도 |
| 상위계획 관련 | 개발제한구역 | - |
| 토지이용 관련 | 토지 및 주택소유, 부정/세장형 필지, 과소필지 | - |
| 기반시설 관련 | 4m 미만도로점유율, 주택접도율 | 상하수도 보급가구수, 수세식/재래식 화장실 확보수, 공동화장실 이용 가구수 |
| 건축물 관련 | 노후불량건축물, 주택밀도 | 건축물 총수, 허가/무허가 건축물수 |
| 주민 관련 | 소득수준, 주민동의, 철거민 | 세입자수, 철거민수, 가구, 생활보호대상자수, 가구 |

**3. 노후주거지 진단지표의 설정**

**3.1. 분석의 틀 설정**

노후주거지 진단지표 설정을 위한 분석의 흐름 및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검토 항목의 설정**

검토항목을 검토하기 위해서 앞에서 살펴본 노후주거지의 개념, 국내 선행연구의 내용은 물론, 정비예정구역 지정관련 기준 및 서류, 실제 수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보고서의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검토항목의 설정방법은 해당되는 문헌에서 키워드가 되는 검토항목을 추출한 후 유사한 항목은 같은 열로 배열하고, 추출된 검토항목을 인구 관련, 자연환경 관련, 상위계획 관련, 토지이용 관련, 기반시설 관련, 건축물 관련, 주민 관련, 기타로 구분하여 유사한 항목 그룹별로 종합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

**2) 진단항목 설정 및 체계화**

진단항목의 선정기준은 공식자료 확보 가능성, 자료 수집 용이성, 주거환경개선사업과의 관련성으로 하며, 다음 과정으로 다른 검토항목으로 대체된 항목을 제외하고 최종 검토항목을 분석하고자 한다.

최종 검토항목으로 분석된 진단항목을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속성으로 유형화하고자 하며, 이때 지역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지구를 진단할 수 있도록 도시입지적 특성, 물리환경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이 모두 고려되도록 지표로 구분하고자 한다.

**3) 진단지표 설정 및 구분**

최종선정된 소분류의 진단항목을 객관적 자료로 도출될 수 있도록 산정지표식을 작성한다. 통계자료나 행정자료로 자료의 취득이 용이하여 지구의 특성을 최소자료로 진단할 수 있는 단순지표와 좀더 자세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밀지표로 구분하고자 한다. 단순지표의 선정은 중분류 항목을 대표하는 소분류항목을 중분류항목별로 1~2개로 선별하고자 한다.

**3.2. 노후주거지의 진단항목 설정**

**1) 국내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항목 설정**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분석의 주요 관점으로 물리적 특성 위주의 연구와 거주특성을 고려한 연구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자료의 분석범위에 따라 전체 시가지를 대상으로 한 것과 개별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구분하여, 검토항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2) 노후주거지 개념 분석을 통한 항목 설정**

기존의 노후주거지 관련 용어들은 노후불량주택, 노후불량건축물, 노후주거지, 불량주거지, 노후불량주거지, 일반노후주거지, 무허가불량주거지역 등으로 논의되어져 왔고, 이러한 용어들은 물리적인 건축물의 노후 정도나 기반시설의 열악한 정도에 의해 정의되어졌다. 이중에서 노후 주거지 관련 개념을 토대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를 검토항목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표 4>와 같다.

**4. 결론**

지금까지의 기성시가지 주거지의 현황특성은 주민의 사회적 여건이나 사업참여의사 등과 관계없이 주로 물리적 환경을 기준으로 지역을 진단하고 특성을 파악해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후주거지의 물리환경적 특성 이외에 도시입지적 특성이나 사회경제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진단지표를 설정하여, 중소도시의 노후주거지 진단지표를 재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선행연구, 노후주거지의 개념, 정비예정구역 지정관련 기준 및 서류, 사례분석 과정을 거쳐 검토항목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 분석하여 진단항목 설정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노후주거지의 특성을 분류하는 대분류항목으로 도시입지환경, 물리적환경, 사회경제환경으로 대분류하고, 도시입지환경은 다시 중분류항목으로 자연환경 및 입지, 상위계획, 토지이용이 분류되었고, 물리적환경의 중분류항목은 기반시설, 대지 및 건축물, 사회경제환경으로는 인구, 주민생활수준, 공공시설 여건, 사업참여 여건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분류 항목별로 37개의 세분류항목이 도출되고, 항목별로 진단지표가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인 진단지표 중 중분류 항목의 중요 항목을 1~2개 선별하여 해당지역의 특징을 몇 개의 지표로 간단히 진단해 볼 수 있는 단순지표와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밀지표로 나누어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본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으로는 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 선정을 위한 과정 중(그림 1 참조)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 향후 연구를 통해 각 항목의 가중치를 구한다면 국토해양부의 국고지원사업 신청시 신청서류 양식으로 하고, 이를 평가하여 지원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한계로는 실제 주거환경정비사업 신청지구와 지원사업지구를 사례로 실증자료를 통한 검증과 유형화과정을 거치지 않아 실제적 효용성을 확인해보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과제로는 실제사례를 통한 검증과정과 전문가 대상 가중치를 통한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등의 보완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강세진, "서울시 주거지유형별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7.
2. 김근성 외, "주거환경개선지구 입지특성과 거주자 의식에 관한 연구-진주시 13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16권 제11호, 2000. pp. 89-96.
3. 김인희 외,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노후주거지 실태 분석 및 정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4. 김철홍, "현지개량사업의 환경개선효과에 관한 연구-거주민 면담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국토계획』제31권 제1호, 1996. pp. 95-107.
5. 박철수 외, 『중․저층 고밀형 노후주거지 정비수법에 관한 사례조사 및 모델개발』, 주택도시연구원, 2002.
6. 서수정 외, 『현지개량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비수법 및 모델개발』, 주택도시연구원, 2006.
7.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전주시, 청주시, 포항시, 천안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각 년도.
8. 손경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선방안』, 국토개발연구원, 1997.
9. 송영섭 외, “현지개량방식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사례연구”, 『국토계획』제30권 제4호, 1995. pp. 127-154.
10. 이왕기, 『저층․고밀 노후주거지역 정비방안 연구-인천 서구일대를 중심으로』, 인천발전연구원, 2005.
11. 이창수 외, 『전국 노후불량주거지역의 현황과 효율적 정비방안』, 대한주택공사, 2004.
12. 임희지 외, 『지역적응형 가구단위 주거지 정비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13. 정치선, “불량주택지역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부산시 주거환경개선지구 현지개량방식을 중심으로”, 동아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8.
14. Robert E, “Universal design in the landscape”, 『System Dynamics Review』, Vol.25, No.4, Aug. 1995. pp. 16-22.
15. 고필종, 『도시환경과 거리가구 디자인』, 서울:미진사, 2001. pp. 131-151.
16. 中野 聰, 『歷史經驗としてのアメリカ帝國 : 米比關係史の群像』, 東京:岩波書店, 2007. pp. 88-106.
17. 박성준, “서울시 여의도 경관색채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2007년 춘계 학술대회』, 한국도시설계학회, 2007. pp. 231-233.

**학술발표대회 발표문 작성요강**

1. 용지는 백상지로하여 크기는 A4규격(가로 210mm, 세로 297mm)을 사용한다.

2. 모든 글자는 글2007이상으로 작성하고 출력은 600dpi 레이져 프린터 이상으로 한다.

3. 첫 페이지 맨 윗줄 좌측에 제목을 쓰고, 두행간을 띄고, 좌측에 발표자 성명(국문이름하단에 영문이름 명기)을 쓰며, 두 행간을 띄고 논문을 시작한다. 발표자의 소속은 발표자 성명 하단에 명기한다.

**4. 여백주기는 위쪽 20, 아래쪽 20, 머리말 15, 꼬리말 5, 왼쪽 15, 오른쪽 15 로 하며 글씨체, 글씨크기, 줄간격은 편집세부사항에 따라 작성한다. (조선일보명조체는 별도로 설치)**

5. 글씨 스타일(체, 크기, 간격 등) 수정 절대금지하며, 표의 내용은 부득이한 경우 7pt까지 축소 가능하도록 한다.

(그림의 경우 잘라낸 영역을 지우고 150dpi로 설정하여 해상도가 깨지지 않도록 한다.)

6. 문장의 시작은 두 글자를 띄고 시작하며(스타일로 지정되어 있음), 1단으로 작성한다.

7. 본문중의 제목들은 번호를 붙여 왼쪽 첫 자리부터 시작하여, 제목의 위 한 행간을 띄운다.

8. 그림과 표는 분문 해당 위치에 배치시킨다.

(표제목 - 좌측 상단에 <표 1>, 그림제목 - 중앙하단에 (그림 1))

9. 논문의 분량은 가능한 한 6페이지 이내로 한다.

10.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1**

**1)**

**①**

**가.**

11. 참고문헌 및 주석 표기방법

1) 인용한 문장에는 반드시 주를 달도록 하되 이름과 발표년도를 괄호로 묶어 표기한다.

2) 참고문헌 및 각주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학회지 : 5. Gold, Rovert, “논문제목”, 『학회지명』, Vol.25, No.4, Aug. 1995. pp.6-8.

단행본 : 8. Conzen, M.R.G., 『책명』, 출판지:출판회사, 1965. pp.45-56.

보고서 : 10. 저자, 『제목』, 보고서번호, 출판기관, 출판지, 1975. pp.20-35.

학술회의지 : 12. 저자, “제목”, 『학술회의지이름』, 주관학회이름, 1975. pp.50-53.

3) 주는 각주로 달고 참고문헌은 논문 끝 페이지에 작성한다.

12. 작품발표인 경우 양식은 동일하며, 프리젠테이션은 여러 매체를 사용할 수 있음

13. 같은 지도교수님 연구실에서 1편 이상의 논문으로 학술대회 참가 할 경우, **지도교수님의 소속과 직위는 모두 동일하게 작성**(\*\* 대학교 \*\*학과(지도교수는 학과 소속이지 대학원 소속 아닌걸로 알고 있음, 대학원소속일 경우는 대학원으로 기입) 교수(교수 직함의 경우도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등으로 구분할 경우 동일한 내용 기입), 그리고 특히!! **요약본과 최종논문 모두 지원받은 내역 등의 사사문구 있을 경우 동일한 내용 필히 기입**!! 기입안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저자 책임

**편집세부사항**

**1.1. 편집용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지종류** | **용지방향** | **여백주기(mm)** | | | | | | | **본문길이** |
| **위쪽** | **아래쪽** | **왼쪽** | **오른쪽** | **머리말** | **꼬리말** | **제본** |
| A4(210×297) | 세로 | 20 | 20 | 15 | 15 | 15 | 5 | 0 | 227 |

**1.2. 글자모양과 문단모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 **글자모양** | | | | **문단모양** | | | | | |
| **글꼴** | **장평**  **(%)** | **자간**  **(%)** | **크기**  **(P)** | **왼쪽**  **여백(P)** | **오른쪽**  **여백(P)** | **들여**  **쓰기(P)** | **줄간격**  **(%)** | **정렬**  **방식** | **비고** |
| 도  입  부 | 논문인덱스\* | 맑은고딕 | 100 | -5 | 10 | 50 | 50 | 0 | 150 | 왼쪽 |  |
| 제목 | 15 | 130 | 혼합 |  |
| 소제목 | 12 |  |
| 영문제목 | 12 |  |
| 영문소제목 | 10 |  |
| 이름 | 10 | 150 |  |
| 영문이름 | 9 |  |
| 저자소속 | 8 |  |
| \* 논문인덱스는 논문제목 바로 위에 [ 한국도시설계학회 2018년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라고 명시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 **글자모양** | | | | **문단모양** | | | | | |
| **글꼴** | **장평**  **(%)** | **자간**  **(%)** | **크기**  **(P)** | **왼쪽**  **여백(P)** | **오른쪽**  **여백(P)** | **들여**  **쓰기(P)** | **줄간격**  **(%)** | **정렬**  **방식** | **비고** |
| 본  문 | 장타이틀 | 맑은고딕 | 100 | -5 | 11 | 145 | 0 | 0 | 150 | 혼합 |  |
| 장타이틀(소) | 맑은고딕 | 100 | 0 | 10 | 150 | 0 |  |
| 본문소제목 | 조선일보명조 | 9 | 150 | 0 | 진하게 |
| 본문 | 조선일보명조 | 9 | 150 | 15 |  |
| 표캡션 | 맑은고딕 | 8 | 0 | 0 | 왼쪽 |  |
| 그림캡션 | 맑은고딕 | 8 | 0 | 가운데 |  |
| 표내용 | 맑은고딕 | 8 | 0 | 10 | 140 | 혼합 |  |
| 각주 | 조선일보명조 | 8 | 11 | 10 | 130 |  |
| 참  고  문  헌 | 참고문헌  타이틀 | 맑은고딕 | 100 | -5 | 11 | 150 | 0 | 150 |  |
| 참고문헌  본문 | 조선일보명조 | 100 | 0 | 9 | 160 | 0 |  |
|  | | | | | | | | | | | |

**1.3. 표모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상단 및 하단 라인 : 두께 0.4

- 표 좌측 및 우측 라인 : 선 없음

- 첫 번째 칸 하단 라인 : 두께 0.5 이중선

- ‘글자처럼 취급’ -> 표 위치는 바탕글 스타일(오른쪽 정렬)

- 표가 사이드바에 배치되는 경우 ‘그림처럼 취급’ 가능

- 첫 번째 칸 면색 : 색상 0, 채도 0, 명도 192, 빨강 204, 녹색 204, 파랑 204

예) 글2010

